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 글쓰기

신형기 외 지음, 사이언스북스, 2006

글 | 이덕환 _ 서강대 화학과 교수 duckhwan@sogang.ac.kr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글을 잘 쓴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우선 한 번 뱉어내고 나면 지나가 버리는 말과는 달리 글은 오랫동안 기록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이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더욱 철저하게 정리하고, 감정을 가라앉혀서 다듬어야 한다. 자칫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두서없이 쓴 글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읽어보면 정말 부끄럽게 느껴진다. 말을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 작은 실수도 글의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되어 버린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소통(疏通)의 길이 열리고, 컴퓨터를 이용한 문서의 편집과 인쇄가 가능하게 되면서 글쓰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모든 것이 말이 아닌 글로 만들어져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서 글쓰기는 누구나 감당해야만 하는 일상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모두가 '전문 작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을 왜곡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으면 된다. 그런 경우에 가장 쉬운 선택은 다른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형식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이다. 자신만의 독특한 문장력이나 표현력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최소한의 기준만 만족시킨다면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글을 쓸 수 있다는 뜻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 글쓰기」는 글쓰기를 두려워하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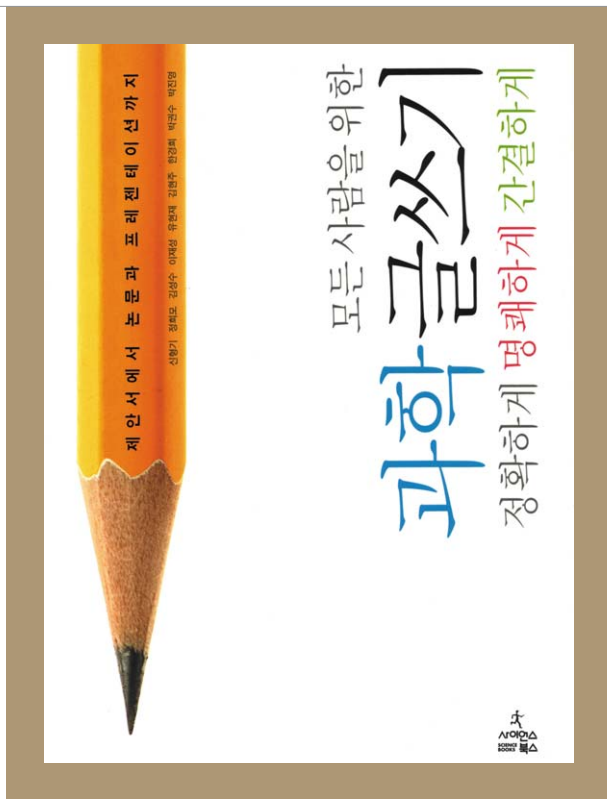
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보고서, 논문, 제안서,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글쓰기 요령이 매우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 글쓰기라고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 책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1장 “왜 과학 글쓰기인가?”다. 저자들은 마치 오늘날의 과학자들에게 특별히 글쓰기가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처럼 믿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글쓰기가 과학자에게만 특별히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에 이르러서 갑자기 더욱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과학 글쓰기’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과학 글쓰기는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절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선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전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글쓰기를 외면할 수 없다. 특정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과학 분야의 전문가인 과학자에게만 글쓰기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에게 글쓰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핵심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다윈만이 글쓰기의 중요성을 인식했던 과학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지금까지 이름이 남아있는 모든 과학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글을 통해서 밝혔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글쓰기가 현대에 들어서 더욱 중요하게 된 것도 아니다.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면서 문자가 발명된 이후로 글쓰기는 언제나 중요한 일이었다. 현대에 와서 달라진 점을 굳이 찾는다면 글쓰기가 요구되는 전문가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글쓰기가 편리하고 쉬워졌을 뿐이다. 과거에는 글쓰기에 필요한 종지와 필기도구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그런 시절에는 글쓰기가 일부 특권층의 전유물일 수밖에 없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서예(書藝)가 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이제 종지와 필기도구가 일반화되었고, 신분의 격차가 사라지면서 누구나 글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면서 사정은 더욱 개선되었다. 이제는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심지어 컴퓨터를 이용한 출판이 가능하게 되면서 누구나 글을 써서 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결국 달라진 것은 글쓰기의 중요성이 아니라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놀라울 정도로 늘어난 것이다. 그래서 일부 특권층의 걱정거리였던 좋은 글쓰기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걱정거리로 변했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가 글쓰기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게 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과학적 글쓰기의 형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음악적 운율(韻律)과 독창적인 표현력이 강조되는 시(詩)를 제외한 모든 글쓰기의 핵심은 단순함과 정확함이다. 자신의 생각을 오해의 가능성이 없도록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모든 글쓰기의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과학 글쓰기라고 다른 점이 전혀 없다. 전문 용어나 수학적 표현

식이 많이 사용되고, 복잡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래프와 표가 자주 등장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과학 글쓰기라고 특별한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과학적 생각은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글쓰기보다 더 쉽다고 할 수 있다.

글쓰기에도 윤리가 필요하다

본래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나 의견을 함께 나눠 갖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동물이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쉽게 뒤섞여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글쓰기의 윤리다.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을 존중받고 싶다면 우선 남의 독창적인 생각을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글쓰기에서 남의 것을 무리하게 베껴서 자신의 것인 듯이 내세우는 '표절'을 도둑질과 같은 윤리적 비리로 여기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강력한 법적 규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글을 통해서 거짓을 유포하는 것도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날조'와 임의로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위조'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날조와 위조는 모든 분야의 글쓰기에서 범죄에 가까운 비리 행위로 취급된다. 과학의 경우에는 날조와 위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 더 심각하게 취급되는 것이 다를 뿐이다. 글쓰기에서는 그런 윤리적 비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누구나 지키고 있는 윤리적 규범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㉔

〈과학독서아카데미 추천 도서〉

1. 『생명우주』 제임스 가드너 지음, 이덕환 옮김, 까치, 2006
2. 『쉽고 재미있는 과학의 역사』 에릭 뉴트 지음, 이민용 옮김, 이끼리오, 2006
3. 『우연의 법칙』 슈테판 클라인 지음, 유명미 옮김, 웅진씽크빅, 2006
4. 『교양으로 읽는 과학의 모든 것 1, 2』 한국과학문화재단, 미래M&B, 2006
5. 『우리 역사 과학 기행』 문중앙 지음, 동아시야, 2006